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7년 1/4분기 미국, 중국,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상승함
- 2017년 1/4분기 미국(1.4%)과 중국(1.3%), 일본(1.0%)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하락(미국 0.7%p, 중국 0.4%p, 일본 0.4%p)하고, 유로지역(2.3%)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상승(유로지역 0.2%p)함
 - 미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계절적 요인의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됨
 -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하락하였지만,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6.9%)은 고정 자산투자 증가로 상승함
 - 일본은 경제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로지역 국가 경제성장률은 상승세를 보임
- 2017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1%p 상승한 4.1%를 기록함
- 2017년 1/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중국을 제외하고 동반 상승하며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99.9를 기록함
- 2017년 1/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2.9%를 기록
 - 국제유가는 상승한 반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함
- 2017년 1/4분기 주요국 국채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발표에도 각국이 통화정책을 유지하며 제한적 상승을 보임
- 세계경제는 내수증가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약화, 유로 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하방리스크가 상존함

■ 2017년 1/4분기 미국과 중국, 일본은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고,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부진과 재고 증가로 전분기보다 0.7%p 하락한 1.4%(연율)를 기록함(〈표 5〉 참조)
-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1.3%를 나타냄(〈표 10〉 참조)
- 일본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0%(연율)를 기록하였으나 성장세가 지속됨(〈표 15〉 참조)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2.3%(연율)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확대됨(〈표 1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¹⁾	3.2	3.1	n.a.	n.a.		n.a.		n.a.		n.a.
선진국 ¹⁾	2.1	1.7	n.a.	1.6		1.5		2.1		n.a.
신흥국 ¹⁾	4.2	4.1	n.a.	4.1		4.2		4.4		n.a.
미국 ²⁾	2.6	1.6	2.6	2.0	0.9	0.8	1.4	3.5	2.1	1.4
중국 ³⁾	7.0	6.7	1.7	1.8	1.5	1.3	1.9	1.8	1.7	1.3
일본 ⁴⁾	1.1	1.0	-0.1	0.2	-0.2	2.5	1.6	1.0	1.4	1.0
유로지역 ⁵⁾	2.0	1.8	1.6	1.3	1.8	2.1	1.4	1.8	2.1	2.3

주: 1)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된 전분기대비 연율임.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7.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6)

3) 중국 국가통계국(2017. 4)

4) 일본 내각부(2017. 6)

5) Eurostat(2017. 6)

■ 2017년 1/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¹⁾는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99.9를 기록함

○ 미국과 유로지역은 전분기보다 각각 0.3, 0.2 상승한 99.7과 100.4를 기록함

○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100.1임

○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2 하락한 98.8을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²⁾	99.8	99.5	100.0	99.7	99.5	99.4	99.5	99.6	99.7	99.9
선진국 ³⁾	100.1	99.7	100.3	100.0	99.8	99.6	99.6	99.6	99.9	100.0
미국	100.1	99.2	100.3	99.9	99.4	99.1	99.1	99.1	99.4	99.7
유로지역	100.3	100.1	100.4	100.3	100.3	100.2	100.0	100.0	100.2	100.4
일본	100.2	99.7	100.4	100.2	99.9	99.7	99.6	99.7	99.9	100.1
중국	99.7	99.1	99.9	99.6	99.3	99.1	99.1	99.1	99.0	98.8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7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세계경기 회복세를 반영하며 전분기보다 2.1%p 상승한 4.1%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2.1%를 기록함

○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4.6%p 상승한 7.0%를 나타냄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2.1	1.3	2.0	1.7	1.4	0.7	1.6	1.1	2.0	4.1
선진국	2.7	1.5	3.2	2.4	1.5	1.3	1.3	1.5	1.7	2.1
신흥국	1.2	1.1	0.3	0.8	1.2	-0.2	1.8	0.5	2.4	7.0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로지역 19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고, 신흥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로 구성됨

2)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의미함

■ 2017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2.9%를 기록하고, 국제유가는 상승한 반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1.9%를,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3.8%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2.5, 4.2 상승한 52.5, 52.7이고, CRB 상품지수²⁾는 8.8 하락한 179.5를 기록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6				2017		2016				2017
	연간	2/4	3/4	4/4	1/4		연간	2/4	3/4	4/4	1/4
세계	2.8	2.4	2.2	2.7	2.9	두바이 현물지수	44.5	47.8	44.8	50.0	52.5
선진국	0.8	0.5	0.7	1.2	1.9	WTI 현물지수	49.3	45.7	43.0	48.5	52.7
신흥국	4.4	4.0	3.7	4.0	3.8	CRB 상품지수 ²⁾	180.6	183.4	184.1	188.3	179.5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2017. 4); 한국은행; Bloomberg

2)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 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가. 미국경제

- 2017년 1/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부진과 재고 증가로 전분기대비 0.7%p 하락한 1.4%를 기록하였으나 1분기 성장 둔화는 일시적인 계절적 현상으로 분석됨
 - 민간소비(1.1%)와 민간투자(3.7%)는 전분기대비 성장이 둔화됨
 - 수출(7.0%)은 전분기보다 증가하였고 수입(4.0%)은 전분기보다 감소함
- 2017년 1/4분기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1.0%)은 전분기대비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117.5)는 전분기대비 상승함
 - 설비가동률(75.8)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산업생산 증가율(0.4%), 제조업 구매지관리 지수(PMI)(57.0), 경기선행지수(125.9)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실업률(4.7%)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취업자 수(49만 8,000명)는 전분기대비 증가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2.5%)과 생산자물가 상승률(3.4%)은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함
- 2017년 1/4분기 국제금리(3년물 1.51%, 10년물 2.44%)는 FOMC의 기준금리 인상발표에 따라 전분기대비 상승함

〈경제성장〉

- 2017년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부진과 재고 증가로 전분기대비 0.7%p 하락한 1.4%를 기록하였으나 1분기 성장 둔화는 일시적인 계절적 현상으로 분석됨³⁾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4%p 하락한 1.1%를 기록함
 - 민간투자 증가율은 설비투자 및 주택투자 등 전 분야에서 큰 폭의 개선을 보이며 전분기 대비 3.7% 상승함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1.5%p 상승한 7.0%로 크게 상승한 반면,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5.0%p 감소한 4.0%를 기록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1.1%p 하락한 -0.9%를 기록함

3) 남정옥(2017. 4. 29), “미국 1분기 GDP 실적 및 해외시각”, 국제금융센터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2.6	1.6	2.6	2.0	0.9	0.8	1.4	3.5	2.1	1.4
민간소비	3.2	2.7	2.9	2.7	2.3	1.6	4.3	3.0	3.5	1.1
재화	4.0	3.6	4.3	4.2	2.1	1.2	7.1	3.5	6.0	0.5
서비스	2.8	2.3	2.2	2.0	2.3	1.9	3.0	2.7	2.4	1.4
민간투자	5.0	-1.6	1.0	2.0	-2.3	-3.3	-7.9	3.0	9.4	3.7
설비	2.1	-0.5	1.6	3.9	-3.3	-3.4	1.0	1.4	0.9	10.4
주택	11.7	4.9	14.9	12.6	11.5	7.8	-7.7	-4.1	9.6	13.0
수출	0.1	0.4	2.9	-2.8	-2.7	-0.7	1.8	10.0	-4.5	7.0
수입	4.6	1.2	2.9	1.1	0.7	-0.6	0.2	2.2	9.0	4.0
정부지출	1.8	0.8	3.2	1.9	1.0	1.6	-1.7	0.8	0.2	-0.9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합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6),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소비부문〉

■ 2017년 1/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1.0%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9.7 상승한 117.5를 기록함

■ 2017년 1/4분기 전분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하락하고 주택가격지수는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9.5%p 하락한 -0.9%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1.9 상승한 193.9를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2.6	3.0	1.0	0.3	-0.1	1.4	0.9	1.6	1.0	0.4	-0.3
소비자신뢰지수 ²⁾	98.0	99.8	98.3	96.0	96.0	94.8	100.7	107.8	117.5	119.4	117.6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 ³⁾ (%)	10.6	6.3	0.5	-3.2	2.6	0.4	-0.7	8.6	-0.9	-2.8	-5.5
주택가격지수 ⁴⁾	179.3	188.7	182.2	182.5	183.2	188.2	191.3	192.0	193.9	197.9	n.a.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Census Bureau; Bloomberg;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7년 1/4분기 설비가동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산업생산 증가율,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⁴⁾,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0.4%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75.8을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대비 3.7 상승한 57.0임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1.7 상승한 125.9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0.7	-1.2	0.1	-0.9	-0.3	-0.2	0.2	0.2	0.4	1.1	0.0
설비가동률 ²⁾	77.7	76.3	76.7	76.0	75.8	75.7	75.8	75.8	75.8	76.7	76.6
ISM제조업 PMI	51.4	51.5	50.9	48.7	50.0	51.5	51.1	53.3	57.0	54.8	54.9
경기선행지수 ³⁾	121.8	123.3	122.1	122.8	122.4	122.9	123.5	124.2	125.9	126.6	127.0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Bloomberg

4)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고용 및 물가⁵⁾〉

■ 2017년 1/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함

○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4.7%를 기록하고, 포괄적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9.2%를 나타냄

○ 비농업취업자는 49만 8,000명 증가하여 전분기 증가규모보다 5만 5,000명이 증가하고,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4만 6,000명으로 전분기보다 7,000명 감소함

■ 2017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2.5%,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2.2%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4%p 상승한 3.4%,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1%p 상승한 1.7%임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만 명)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¹⁾	5.3	4.9	5.1	5.0	4.9	4.9	4.9	4.7	4.7	4.4	4.3
포괄적 실업률(u-6) ²⁾	10.4	9.6	10.2	9.9	9.8	9.7	9.7	9.3	9.2	8.6	8.4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271.3	224.0	51.1	83.2	58.8	49.3	71.6	44.3	49.8	17.4	13.8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27.8	26.3	27.3	26.9	27.2	26.8	25.8	25.3	24.6	24.3	24.0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0.1	1.3	0.1	0.5	1.1	1.0	1.1	1.8	2.5	2.2	1.9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1.8	2.2	1.8	2.0	2.2	2.2	2.2	2.1	2.2	1.9	1.7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3.3	-1.0	-1.3	1.0	-1.8	-1.9	-1.3	1.0	3.4	3.9	2.6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2.0	1.5	2.2	1.8	1.6	1.6	1.3	1.6	1.7	1.9	1.8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Bloomberg

5) 물가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전년동기와 비교함

〈국채금리〉

- 2017년 1/4분기 국채금리는 3월 FOMC의 기준금리 인상발표에 따라 전분기대비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28bp 상승한 1.51%,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31bp 상승한 2.44%임
 - 미 연준은 2017년 1/4분기에 이어 6월에도 추가인상을 단행하였으며 FOMC 위원들은 향후 2017년 하반기 중 1회, 2018년 3회 인상할 것으로 전망함⁶⁾

〈표 9〉 미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국채 3년물	1.01	1.00	1.01	1.13	1.03	0.91	0.84	1.23	1.51	1.44	1.48
국채 10년물	2.13	1.84	2.21	2.18	1.92	1.74	1.56	2.13	2.44	2.29	2.29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6) 자본시장연구원(2017. 7), 『자본시장리뷰』

나. 중국경제

- 2017년 1/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한 1.1%이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6.9%로 나타남
- 2017년 1/4분기 중국의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10.9%)과 소비자신뢰지수(112.0)는 전분기보다 모두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7.6%)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51.6) 역시 전분기보다 모두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4%)은 전분기대비 하락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7.4%)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7년 1/4분기 국채금리(3년물 4.16%, 10년물 4.25%)는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6.889)은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임

〈경제성장〉

- 2017년 1/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6%p 하락한 1.1%이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6.9%로 나타남
 - 고정자산투자는 민간투자 회복과 함께 「일대일로」 추진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장되며 전분기보다 0.9%p 상승한 9.1%를 기록함
 -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수요 회복 및 기저효과로 전분기보다 12.6%p 상승한 7.4%를 나타냄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2.8%p 상승한 25.1%를 기록함

7) 이상원·이치훈(2017. 4. 17), “중국경제: 1분기 성장률 반등 불구 신용리스크 증대”, 국제금융센터

〈표 10〉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¹⁾	6.9	6.7	1.7 (7.0)	1.8 (6.9)	1.5 (6.8)	1.3 (6.7)	1.9 (6.7)	1.8 (6.7)	1.7 (6.8)	1.1 (6.9)
고정자산투자 ²⁾	11.4	9.0	11.6	10.8	10.1	10.5	9.7	8.1	8.2	9.1
수출 증가율 ³⁾	-1.1	-7.6	-2.8	-6.3	-5.2	-11.9	-6.3	-6.9	-5.2	7.4
수입 증가율 ³⁾	-14.2	-5.6	-13.3	-14.1	-11.6	-13.9	-6.9	-4.1	2.3	25.1

주: 1) 전분기대비,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소비부문〉

■ 2017년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모두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10.9%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3.9 상승한 112.0을 기록함

〈표 11〉 중국의 주요 소비 관련 지표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0.6	10.4	10.7	11.1	10.5	10.2	10.5	10.6	10.9	10.7	10.7
소비자신뢰지수	105.9	104.4	104.7	103.9	102.8	101.2	105.7	108.1	112.0	116.4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7년 1/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구매자관리지수는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5%p 상승한 7.6%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51.6임

〈표 12〉 중국의 주요 생산 관련 지표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6.0	6.2	5.9	5.9	6.8	6.1	6.1	6.1	7.6	6.5	6.5
제조업 PMI ²⁾	49.9	51.6	49.8	49.7	49.5	50.1	50.2	51.4	51.6	51.2	51.2

주: 1)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⁸⁾ 및 물가〉

■ 2017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8%p 하락한 1.4%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4.1%p 상승한 7.4%를 기록함

〈표 13〉 중국의 주요 물가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4	2.0	1.7	1.5	2.1	2.1	1.7	2.2	1.4	1.2	1.5
생산자물가 상승률	-5.2	-1.3	-5.7	-5.9	-4.8	-2.9	-0.8	3.3	7.4	6.4	5.5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8)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 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국채금리 및 환율〉

■ 2017년 1/4분기 국채금리는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안정세를 보임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91bp 상승한 4.16%, 국채 10년물 금리는 77bp 상승한 4.25%임

○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중국인민은행이 기존의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분기 보다 0.8% 상승한 6.889위안을 기록함

〈표 14〉 중국의 국채금리와 환율 지표

(단위: %, 위안)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국채 3년물	3.28	3.34	3.05	3.39	3.90	3.34	2.86	3.25	4.16	4.18	4.13
국채 10년물	3.50	3.56	3.51	3.52	3.83	3.68	3.24	3.48	4.25	4.50	4.50
위안/달러	6.284	6.644	6.302	6.392	6.539	6.533	6.667	6.833	6.889	6.890	6.885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다. 일본경제

- 2017년 1/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확대되며 전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함
- 2017년 1/4분기 일본의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광공업생산 증가율(0.2%)은 전분기보다 하락하며 성장세가 둔화됨
 - 소매판매 증가율(-0.2%)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43.4)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3.2%)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1.4%)은 전분기 대비 모두 하락함
 - 실업률(2.9%)은 전분기대비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1.44배)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0.3%)은 전분기와 동일함
- 2017년 1/4분기 국채금리(3년물 -0.18%, 10년물 0.08%)는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현상 유지 결정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함

〈경제성장〉

- 2017년 1/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확대되며 전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0.3%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저효과와 함께 연초 신규투자의 신중한 태도로 전분기보다 1.3%p 하락한 0.6%를 나타냄
 - 주택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0.3%를 기록함
 - 공공투자 증가율은 2020년 개최예정인 도쿄올림픽의 선수촌 건설이 시작되면서 전분기대비 2.9%p 상승한 -0.1%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3%p 하락한 2.1%를 기록함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1.4%를 기록함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0.0%를 나타냄

〈표 15〉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1.1	1.0	-0.1 (-0.3)	0.2 (0.7)	-0.2 (-1.0)	0.6 (2.5)	0.4 (1.6)	0.3 (1.0)	0.3 (1.4)	0.3 (1.0)
민간소비	-0.4	0.4	-0.4	0.5	-0.6	0.3	0.2	0.4	0.0	0.3
설비투자	1.1	1.3	-1.1	0.6	0.1	-0.1	1.3	-0.2	1.9	0.6
주택투자	-1.6	5.6	1.1	1.6	-0.8	1.2	3.1	2.6	0.2	0.3
공공투자	-2.1	-3.0	0.5	-1.4	-1.6	-0.3	0.7	-1.3	-3.0	-0.1
수출	2.9	1.2	-4.0	2.2	-0.2	0.5	-1.4	1.9	3.4	2.1
수입	0.8	-2.3	-2.7	2.5	-0.3	-2.0	-1.1	-0.2	1.3	1.4
정부지출	1.7	1.3	0.1	0.4	0.7	1.4	-1.2	0.2	0.0	0.0

주: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7. 6)

〈소비 및 생산부문〉

- 2017년 1/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7%p 하락한 0.2%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둔화됨
- 2017년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7%p 하락한 -0.2%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1.2 상승한 43.4로 집계됨
- 2017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모두 하락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4.7%p 하락한 3.2%를 나타냄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7%p 감소한 -1.4%를 기록함

〈표 16〉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1.2	-0.2	-1.0	0.0	-0.9	0.2	1.6	1.9	0.2	4.0	-3.3
소매판매 증가율 ²⁾	-0.4	-0.6	1.1	-0.2	-1.3	0.0	0.5	1.5	-0.2	1.4	-1.6
소비자신뢰지수 ³⁾	41.3	41.7	41.0	42.2	41.3	41.2	42.1	42.2	43.4	43.2	43.6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1.9	6.4	6.2	-0.7	5.5	4.9	7.1	7.9	3.2	1.9	-0.3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4.1	1.7	-8.0	2.9	4.2	-6.4	5.5	0.3	-1.4	-43.7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7년 1/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⁹⁾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2.9%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1.44배로 전분기대비 높아지며 상승세가 계속됨

■ 2017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0.3%를 나타냄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0.1%를 나타냄

〈표 17〉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배,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3.4	3.1	3.4	3.3	3.2	3.2	3.0	3.1	2.9	2.8	3.1
유효구인배율 ¹⁾	1.20	1.40	1.22	1.25	1.30	1.35	1.37	1.40	1.44	1.48	1.49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0.8	-0.1	0.1	0.3	0.0	-0.4	-0.5	0.3	0.3	0.4	0.4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1.0	0.3	0.8	0.8	0.6	0.5	0.2	0.1	-0.1	-0.3	-0.2

주: 1) 구인 수 / 구직자 수,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10=100,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9)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국채금리〉

■ 2017년 1/4분기 국채금리는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현상유지 결정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bp 상승한 -0.18%,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2bp 상승한 0.08%임

○ 일본은행(BOJ)은 2017년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표 18〉 일본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국채 3년물	0.02	-0.20	0.02	0.01	-0.13	-0.24	-0.24	-0.19	-0.18	-0.18	-0.15
국채 10년물	0.36	-0.04	0.39	0.31	0.07	-0.11	-0.12	-0.04	0.08	0.03	0.04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라. 유로지역¹⁰⁾경제

- 2017년 1/4분기 전분기대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상승한 0.6%를 기록함
- 2017년 1/4분기 유로지역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경기체감지수(108.0)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산업생산 증가율(0.1%)은 전분기대비 하락함
 -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실업률(6.0%)은 전 지역에서(북유럽 6.5%, 동유럽 6.1%, 남유럽 15.7%) 전분기보다 하락함
 -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은 북유럽(1.6%)을 제외한 유럽 국가(동유럽 1.6%, 남유럽 1.7%)에서 상승하며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7년 1/4분기 주요국 국제금리(독일 3년물 -0.71%, 독일 10년물 0.36%, 영국 3년물 0.22%, 영국 10년물 1.28%)는 유럽중앙은행이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규모 및 시행계획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변동을 보임

〈경제성장〉

- 2017년 1/4분기 전분기대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제성장률 상승과 영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상승한 0.6%를 기록함(〈표 19〉, 〈표 22〉 참조)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전분기보다 각각 0.2%p, 0.1%p, 0.1%p 상승한 0.6%, 0.4%, 0.8%를 나타낸 반면, 영국은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0.2%, 프랑스는 전분기와 동일한 0.5%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3%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1%p 하락한 1.3%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1.2%를 기록함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2.5%p 하락한 1.3%를 나타냄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0.4%를 기록함

10)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표 1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2.0	1.8	0.4	0.3	0.4	0.5	0.3	0.4	0.5	0.6
			(1.6)	(1.3)	(1.8)	(2.1)	(1.4)	(1.8)	(2.1)	(2.3)
민간소비	1.8	2.1	0.4	0.4	0.4	0.7	0.4	0.4	0.4	0.3
고정자본투자	3.2	3.7	0.0	1.2	0.8	0.5	1.2	0.0	3.4	1.3
수출	6.2	3.0	1.1	0.3	0.7	0.4	1.2	0.4	1.7	1.2
수입	6.3	4.1	0.8	1.3	1.4	0.0	1.6	0.3	3.8	1.3
정부지출	1.3	1.8	0.3	0.4	0.6	0.7	0.3	0.1	0.3	0.4

주: 1)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7, 7)

〈소비 및 생산부문〉

■ 2017년 1/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8.0로 전분기보다 1.1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하락한 0.3%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 -5.5로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나 개선되는 모습임

■ 2017년 1/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9%p 하락한 0.1%임

〈표 20〉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¹⁾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유로지역 ESI ²⁾	104.2	104.8	104.5	106.2	103.9	104.2	104.2	106.9	108.0	109.7	109.2
소매판매 증가율 ³⁾ (%)	3.1	2.2	0.7	0.0	0.7	0.3	0.5	0.9	0.3	0.1	n.a.
소비자신뢰지수 ⁴⁾	-6.3	-7.8	-7.0	-6.4	-8.4	-7.9	-8.3	-6.5	-5.5	-3.6	-3.3
산업생산 증가율 ⁵⁾ (%)	2.1	1.4	0.3	0.0	0.8	0.0	0.3	1.0	0.1	0.5	n.a.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 + 서비스업(30%) + 소비자신뢰(20%) + 건설업(5%) + 소매거래(5%)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 및 물가¹¹⁾〉

■ 2017년 1/4분기 유럽지역의 실업률은 전 지역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6.0%를 기록함
-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각각 0.1%p, 0.4%p, 0.4%p 하락한 6.5%, 6.1%, 15.7%로 나타남

■ 2017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북유럽을 제외하고 모든 유럽 국가에서 상승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8%p 상승한 1.8%임
- 권역별로 보면, 북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1.6%이고, 동유럽, 남유럽은 전분기대비 각각 1.2%p 상승한 1.6%, 1.7%를 기록함

〈표 2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6년 3/4	6.3	6.7	6.8	16.3	0.5	1.5	-0.2	0.1
2016년 4/4	6.2	6.6	6.5	16.1	1.0	1.6	0.4	0.5
2017년 1/4	6.0	6.5	6.1	15.7	1.8	1.6	1.6	1.7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7)

11)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표 22〉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독일	실질 GDP	1.7	1.9	0.5	0.2	0.4	0.7	0.5	0.2	0.4	0.6
	민간소비	2.0	2.1	0.7	1.1	1.3	0.7	0.4	0.5	0.2	0.3
	고정자본투자	1.7	2.2	0.1	0.1	1.6	1.5	-1.3	-0.1	0.4	1.7
	수출	5.2	2.7	1.6	0.0	-0.7	1.6	1.1	-0.3	1.7	1.3
	수입	5.5	3.8	0.4	1.1	0.6	1.5	0.2	0.6	2.5	0.4
프랑스	실질 GDP	1.1	1.2	0.0	0.4	0.3	0.6	-0.1	0.2	0.5	0.5
	민간소비	1.4	2.2	0.3	0.3	0.4	1.3	0.3	0.1	0.6	0.1
	고정자본투자	1.0	2.8	-0.2	0.8	1.3	1.1	0.1	0.1	0.7	1.2
	수출	4.3	1.8	1.7	-0.4	0.5	0.2	0.3	0.7	1.1	-0.7
	수입	5.7	4.2	0.4	1.6	2.4	0.4	-0.7	2.8	0.6	1.2
이탈리아	실질 GDP	0.8	0.9	0.4	0.1	0.2	0.4	0.1	0.3	0.3	0.4
	민간소비	1.6	1.4	-0.2	0.1	-0.1	0.1	0.5	0.2	0.1	0.5
	고정자본투자	1.6	2.9	0.4	0.4	0.5	0.9	0.4	1.5	1.2	-0.8
	수출	4.4	2.4	1.3	-1.2	1.7	-0.6	2.2	0.3	1.9	0.7
	수입	6.8	2.9	1.3	0.0	1.6	-1.2	2.2	1.0	2.3	1.6
스페인	실질 GDP	3.2	3.2	0.8	0.9	0.8	0.8	0.8	0.7	0.7	0.8
	민간소비	2.9	3.2	0.5	0.4	0.6	0.9	0.7	0.6	0.8	0.4
	고정자본투자	6.0	3.1	2.3	0.7	0.9	0.4	1.4	-0.1	0.5	2.0
	수출	4.9	4.4	0.9	2.2	0.5	0.2	3.4	-1.2	2.0	4.0
	수입	5.6	3.3	1.7	2.3	0.6	-0.2	2.6	-2.0	1.8	3.8
영국	실질 GDP	2.2	1.8	0.5	0.3	0.7	0.2	0.6	0.5	0.7	0.2
	민간소비	2.4	2.8	0.9	0.6	-0.2	0.7	0.7	0.7	0.7	0.4
	고정자본투자	3.4	0.5	1.2	0.8	-0.9	0.0	0.2	0.6	0.1	1.0
	수출	6.1	1.8	-0.7	-0.6	5.9	-2.9	1.3	-2.1	4.6	-0.7
	수입	5.5	2.8	-2.3	0.6	2.1	0.4	0.3	2.3	-1.0	1.7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7)

〈국채금리〉

- 2017년 1/4분기 유로지역 평균 국채금리는 유럽중앙은행의 주요 정책금리 동결과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규모 및 시행계획 유지로 인해 제한적으로 변동함
- 독일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3bp 하락한 -0.71%,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7bp 상승한 0.36%를 기록함
 - 영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bp 하락한 0.22%,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3bp 상승한 1.28%임

〈표 23〉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독일국채 3년물	-0.20	-0.58	-0.66	-0.68	-0.44	-0.53	-0.66	-0.68	-0.71	-0.72	-0.63
독일국채 10년물	0.53	0.14	-0.07	0.19	0.32	0.12	-0.07	0.19	0.36	0.25	0.38
영국국채 3년물	0.85	0.39	0.16	0.23	0.60	0.57	0.16	0.23	0.22	0.20	0.19
영국국채 10년물	1.82	1.22	0.72	1.25	1.56	1.37	0.72	1.25	1.28	1.07	1.09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2. 국내경제

- 2017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9%, 전분기대비 1.1%를 나타냄
 - 민간소비(2.0%) 회복세는 제한적이었으나 수출 증가에 따라 설비투자(14.4%)가 확대되고 건설투자(11.3%)가 증가세를 유지함
- 2017년 1/4분기 경제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의 경우 소득여건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에 그쳤으며,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업황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로 14.4%,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 중심으로 11.3% 증가함
 -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2.6%)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수출 증가에 따른 광공업 생산(2.8%) 확대로 3.9% 증가함
 - 총취업자 수는 수출 회복에 따른 기업의 경기 인식 개선 및 정부의 일자리 사업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3%p 하락한 59.4%, 실업률은 구직활동 증가로 전분기대비 1.1%p 상승한 4.3%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는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상승압력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상승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분기대비 2.5p 하락한 94.8을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함
 - 수출은 대외 경기 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4.7%(1,321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수입도 유가 상승 등으로 23.9%(1,163억 달러)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58억 6천만 달러로 축소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정체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에 그쳤으며, 실질소득은 물가상승세 확대로 1.2% 감소함
- 2017년 1/4분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분기대비 0.3 상승한 100.8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대비 0.5 상승한 100.8을 기록함
- 2017년 1/4분기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간 가운데 생산과 투자가 확대되었으나, 고용 및 소비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해 경기 회복은 제한적임

가. 경제성장

- 2017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가 소비심리위축으로 제한되었으나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확대에 이어졌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로는 6분기 만에 최고치인 1.1% 증가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거주자 국외소비 중심으로 2.0% 증가함(〈표 25〉 참조)
 -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 중심으로 14.4% 증가함(〈표 26〉 참조)
 -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중심으로 11.3% 증가함(〈표 26〉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2.7% 증가함
 -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3.9% 증가하였고,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9.9% 증가함¹²⁾

〈표 24〉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 GDP	2.4 (0.4)	3.0 (1.3)	3.2 (0.7)	2.8	2.9 (0.5)	3.4 (0.9)	2.6 (0.5)	2.4 (0.5)	2.8	2.9 (1.1)
민간소비	1.7	2.2	3.4	2.2	2.3	3.5	2.7	1.5	2.5	2.0
설비투자	4.3	6.0	3.1	4.7	-4.6	-2.9	-3.9	2.0	-2.3	14.4
건설투자	4.6	7.5	9.6	6.6	9.0	10.6	11.2	11.6	10.7	11.3
지식생산물투자	1.2	1.4	2.3	1.8	1.0	2.7	2.7	2.6	2.3	2.7
수출	-1.4	-0.4	1.7	-0.1	1.3	2.6	3.4	1.2	2.1	3.9
수입	0.4	2.0	5.0	2.1	3.4	4.8	6.5	3.3	4.5	9.9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괄호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2)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6. 2), “2017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7년 1/4분기 소매판매는 거주자 국외소비 및 서비스 소비 확대에 따라 증가세는 유지하였으나 미흡한 가계소득 개선¹³⁾과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못한 채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9% 증가에 그침¹⁴⁾
 - 4월에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5.8%) 판매가 크게 늘며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였고, 5월에는 의복 등 준내구재(△4.7%) 판매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6% 증가에 그침
 - 2017년 1/4분기 내구재 판매는 신차 출시, 노후경유차 교체 세제지원¹⁵⁾ 등으로 승용차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함
 - 4월과 5월에는 승용차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른 더위와 미세먼지로 냉방기기와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5.8%, 6.2% 증가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함
 - 4월에는 연휴를 앞두고 의복 판매가 증가하며 0.6% 증가하였으나, 5월에는 긴 연휴¹⁶⁾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야외활동을 자제함에 따라 의복 등의 판매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7% 감소함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이 줄어들며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감소하여¹⁷⁾ 전년동기대비 2.6% 증가에 그침
 - 4월과 5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1.4%, 1.6% 증가에 그침

13) 〈표 32〉 참조

14) 한국은행(2017. 4),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2017. 5. 8), 『조사통계월보 4월호』

15) 노후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사업은 2016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시행되는 제도로, 2006년 12월 말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100만 원 한도, 교육세·부가세 고려 시 총 143만 원) 감면함(국회에산정책처(2014. 4), 『NABO 경제동향&이슈 4월호』)

16) 2017년 5월 첫째 주에 노동절(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의 휴일이 포함됨

17) 국회예산정책처(2014. 5), 『NABO 경제동향&이슈 5월호』

〈표 25〉 소비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민간소비	2.2	2.3	3.5	2.7	1.5	2.5	2.0		
소매판매	4.1	5.0	5.9	3.5	2.5	4.3	1.9	2.6	1.6
내구재	10.0	6.4	11.1	1.1	0.1	4.5	3.1	5.8	6.2
* 승용차	21.2	8.5	16.5	-9.8	-3.6	2.5	2.6	-2.7	-4.5
준내구재	-1.1	2.3	4.4	3.5	0.4	2.5	-1.4	0.6	-4.7
비내구재	3.1	5.3	3.9	4.9	5.0	4.8	2.6	1.4	1.6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1/4분기 설비투자는 수출 회복, 글로벌 IT 업황 개선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함

○ 2017년 1/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IT 업황 개선에 따른 설비확충을 위한 대규모 반도체 제조용 장비 도입 등 기계류 투자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8.0% 상승함

- 4월과 5월 설비투자지수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이어지며 각각 전년동월 대비 14.3%, 19.5% 상승함

○ 2017년 1/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¹⁸⁾는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에 따른 기업의 투자유인 확대¹⁹⁾로 전년동기대비 29.0% 증가함

- 4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부문 및 전자·영상음향통신업 등 민간부문 모두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43.8% 증가함²⁰⁾

- 5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영상음향통신업 등 민간부문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26.4% 증가함²¹⁾

18)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19) 한국은행(2017. 4), 『경제전망보고서』

20) 통계청 보도자료(2017. 5. 31), “2017년 4월 산업활동동향”

21)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30), “2017년 5월 산업활동동향”

〈표 26〉 투자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설비투자	4.7	-4.6	-2.9	-3.9	2.0	-2.3	14.4		
설비투자지수	6.9	-7.6	0.6	-4.7	5.9	-1.3	18.0	14.3	19.5
기계류	3.6	-13.0	-7.6	0.4	12.0	-2.2	24.5	21.0	41.0
운송장비	15.0	8.3	20.9	-15.7	-6.1	0.9	2.5	-0.6	-17.9
국내기계수주 ³⁾	-3.9	-0.6	-3.0	3.3	16.0	3.8	29.0	43.8	26.4
건설투자	6.6	9.0	10.6	11.2	11.6	10.7	11.3		
건설기성(불변)	5.0	13.2	15.8	14.5	17.7	15.4	17.9	19.1	15.2
건축	7.3	22.9	27.1	23.2	28.8	25.7	26.8	29.3	21.9
토목	1.2	-3.1	-3.2	-2.3	-1.9	-2.6	-1.0	-4.6	-0.8
국내건설수주(경상)	48.4	13.9	-6.7	1.3	26.0	8.4	3.6	33.9	17.4
건축	50.5	13.5	1.7	3.6	39.7	14.5	-5.0	20.4	9.6
토목	42.6	15.1	-32.4	-6.4	-6.8	-9.4	31.0	108.3	49.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1/4분기 건설투자는 2015년~2016년 중 급증한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수주 등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건설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함

○ 건설기성(불변)²²⁾은 민간주택 건설 호조, SOC 집행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함²³⁾

- 4월과 5월 건설기성은 건축부문의 증가세가 유지되며 전년동월대비 각각 19.1%, 15.2% 증가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향후 부동산시장 경기 위축을 우려한 건설사들의 소극적 투자로 3.6% 증가에 그침

- 4월 국내건설수주는 대규모 공장 증설과 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토목(108.3%) 부문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3.9% 증가함²⁴⁾

22)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 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4. 28), “17. 3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4) 한국개발연구원(2017. 6), “KDI 경제동향”

- 5월 국내건설수주는 발전·통신, 기계설치 등 토목(49.2%) 부문 증가세 유지로 전년동월 대비 17.4% 증가함²⁵⁾

〈산업생산〉

- 2017년 1/4분기 산업생산은 수출 증가에 따른 광공업 생산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3.5%, 2.4% 증가함
 - 2017년 1/4분기 광공업 생산은 수출 개선으로 인해 반도체, 전자부품 등 ICT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함
 - 4월 광공업 생산은 1분기 IT 업종 중심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에 그침²⁶⁾
 - 5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에 그침
 - 2017년 1/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4.0%) 등 민간소비 관련 업종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주식거래 증가 등으로 금융 및 보험업(6.9%)이 확대되며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함²⁷⁾
 - 4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3.1%)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금융 및 보험업(6.7%), 부동산 및 임대업(6.8%) 등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함
 - 5월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6.7%) 등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운수업(△0.4%), 숙박 및 음식점업(△3.2%)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에 그침

25)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30), “2017년 5월 산업활동동향”

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5. 31), “17. 4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3. 31), “17.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표 27〉 산업 생산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전산업 생산 ³⁾	1.9	2.1	3.2	3.0	3.5	3.0	3.9	3.5	2.4
광공업	-0.3	-0.3	0.7	0.5	2.8	1.0	3.7	1.8	0.1
제조업	-0.3	-0.5	0.9	0.6	2.9	1.0	3.8	1.8	0.0
자동차	1.3	0.0	-3.5	-10.4	1.8	-2.8	0.4	1.8	-2.6
ICT	1.3	0.1	7.0	8.3	4.1	5.0	8.6	0.8	0.3
서비스업	2.9	2.8	3.5	3.6	2.1	3.0	2.6	2.5	2.1
도매 및 소매업	1.8	2.9	4.1	2.7	2.2	3.0	1.2	1.0	0.1
운수업	1.2	1.8	4.1	3.5	-1.5	1.9	-0.3	0.5	-0.4
숙박 및 음식점업	-2.0	-0.6	1.8	1.0	-3.9	-0.5	-4.0	-3.1	-3.2
금융 및 보험업	9.1	6.4	4.2	6.5	6.5	5.9	6.9	6.7	6.7
부동산 및 임대업	8.4	3.7	-0.2	3.7	2.3	2.3	5.6	6.8	4.9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 및 물가〉

■ 2017년 1/4분기 총취업자 수는 수출 회복에 따른 기업의 경기 인식 개선 및 정부의 일자리 사업 등으로²⁸⁾ 구인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59.4%, 실업률은 4.3%를 기록함

○ 4월과 5월 총취업자 수는 전년동월의 낮은 기저 및 제조업 인력 수급 개선, 건설업 호조에 따른 일용직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6%, 1.4% 증가함²⁹⁾

- 2017년 1/4분기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인구 감소 및 신규채용 위축으로³⁰⁾ 전년동기대비 0.3% 증가에 그쳤으며, 4월과 5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1%, 0.8% 증가함

28) 한국은행(2017. 4), 『경제전망보고서』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5. 11), '17. 4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6. 14), '17. 5월 고용동향

30) 대기업의 '16. 3/4~'17. 1/4 채용 계획 전년동기대비 △8.8%('16. 10월, 사업체 조사)

청년 인구증감(전년동월비, 만 명):('16. 10) △7.6, (11) △8.0, (12) △8.6,('17. 1) △5.2, (2) △5.6, (3) △6.4, (4) △6.8(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15), "'17. 1월 고용동향")

- 2017년 1/4분기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3%p 하락한 59.4%를 기록하였으며, 4월에는 60.8%를 기록한데 이어 5월에는 1997년 5월(61.8%) 이후 최고치인 61.3%를 나타냄
- 2017년 1/4분기 실업률은 구직활동 증가로 전분기대비 1.1%p 상승한 4.3%를 기록하였으며, 4월에는 4.2%, 5월에는 3.6%를 기록함
 - 청년실업률의 경우 졸업, 공무원 원서접수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분기대비 2.4%p 상승한 10.8%를 기록한데 이어, 4월에는 11.2%로 외환위기('98년 4월, 11.8%)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5월에는 9.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함³¹⁾

■ 2017년 1/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광공업의 경우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높은 기저 및 구조조정 여파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생산 개선³²⁾으로 증가폭이 확대됨³³⁾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고령화 등 비경기적 요인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하였고,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하였으나, 5월에는 0.2% 증가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³⁴⁾는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해운 등 구조조정 업종의 부진이 이어졌으나 수출 및 생산 회복의 영향으로 각각 1.3%, 0.4% 감소에 그침³⁵⁾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건설업 및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2.5% 증가함
 - 건설업의 경우 높은 건설기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준공물량 증가에 따른 일용직 고용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숙박·음식업의 경우 자영업자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이어짐³⁶⁾
 -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하며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5월에는 내수 회복세가 미흡한 가운데 자영업자 증가세도 둔화되어 1.9% 증가에 그침

31) 2017년 5월 기준, 실업자 뿐 아니라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 취업애로계층(잠재적 실업자)을 반영한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9%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0.9%p)으로 상승함

32) <표 27> 참조

3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15), “17. 1월 고용동향”

34) 제조업 포함

3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5. 11), “17. 4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6. 14), “17. 5월 고용동향”

3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4. 12), “17. 3월 고용동향”

〈표 28〉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총취업자 ¹⁾	1.3	1.1	1.1	1.2	1.2	1.2	1.4	1.6	1.4
청년취업자 ¹⁾	1.8	1.0	2.1	1.5	0.2	1.2	0.3	1.1	0.8
고용률 ²⁾	60.3	59.1	60.8	61.1	60.7	60.4	59.4	60.8	61.3
실업률 ³⁾	3.6	4.3	3.8	3.6	3.2	3.7	4.3	4.2	3.6
청년 ⁴⁾ 실업률 ³⁾	9.2	11.3	10.3	9.3	8.4	9.8	10.8	11.2	9.3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7.4	-4.9	-5.7	-5.4	-1.0	-4.4	-2.4	-1.0	0.2
광공업	3.6	3.0	1.0	-1.5	-2.3	0.0	-2.4	-1.3	-0.4
제조업	3.6	2.9	0.8	-1.6	-2.4	-0.1	-2.5	-1.4	-0.6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1.4	1.1	1.7	2.3	2.1	1.8	2.5	2.4	1.9
건설업	1.5	-0.5	-1.5	2.1	4.7	1.2	7.6	8.9	8.8
도·소매, 음식, 숙박	1.2	-0.9	0.7	1.8	1.4	0.7	2.2	1.9	1.4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7	1.5	0.2	0.6	0.5	0.7	-0.7	-0.4	-1.8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8	2.5	3.4	3.3	2.5	2.9	2.8	2.5	2.1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7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상승 압력으로³⁷⁾ 전년 동기대비 2.1% 상승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9%, 2.0% 상승함

○ 2017년 1/4분기 상품물가는 축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2.0% 상승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6%, 2.0% 상승함

- 농축수산물(6.1%)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축산물 가격 인상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공업제품(2.1%)은 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전기·수도·가스(△6.9%)의 경우 기저효과³⁸⁾, 도시가스요금 인상³⁹⁾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됨
- 4월 중 상품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함⁴⁰⁾

37) 한국은행(2017. 4), 『통화신용정책보고서』

38) '16년 1월 도시가스요금을 9% 인하함

39) '17년 3월 도시가스요금을 3.1% 인상함

4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5. 2), "2017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 5월 중 상품물가는 축수산물 가격 상승,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함⁴¹⁾

○ 2017년 1/4분기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개인서비스가격 상승으로 2.1% 상승하였으며, 4월과 5월에도 개인서비스가격 중심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2.2%, 2.0% 상승함

■ 2017년 1/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비관적인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2.5 하락한 94.8을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함

○ 4월에는 수출호조,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등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 5개월 만에 기준치(100)를 상회한 101.2를 기록하였으며, 5월에는 전달보다 6.8 상승한 108.0⁴²⁾을 기록하며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됨

〈표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소비자심리지수 ²⁾	102.7	99.3	99.9	101.6	97.3	99.5	94.8	101.2	108.0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0.7	0.9	0.8	0.7	1.5	1.0	2.1	1.9	2.0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0.7	-1.0	-1.0	-1.1	0.7	-0.6	2.0	1.6	2.0
농축수산물	2.0	3.7	1.1	3.1	7.5	3.8	6.1	4.5	6.2
공업제품	-0.2	-1.1	-0.7	-0.5	0.4	-0.5	2.1	1.5	1.4
전기·수도·가스	-7.4	-8.2	-7.0	-13.0	-8.7	-9.2	-6.9	-3.9	-1.6
서비스	1.8	2.4	2.4	2.2	2.1	2.3	2.1	2.2	2.0
집세	2.5	2.0	1.9	1.8	1.7	1.9	1.7	1.8	1.8
공공서비스	1.2	2.0	1.9	1.0	0.9	1.5	1.0	1.1	1.1
개인서비스	1.9	2.6	2.7	2.8	2.7	2.7	2.7	2.8	2.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2016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3)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소급 변경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4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6. 1), “2017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42) 2014년 4월(108.4) 이후 최고치이며, 상승폭 역시 2009년 8월(+7.5p) 이후 가장 높았음

〈대외거래〉

- 2017년 1/4분기 수출은 대외 경기 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4.7%(1,321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수입도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용 수입액⁴³⁾ 증가로 23.9% 증가(1,163억 달러)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58억 6천만 달러로 축소됨
- 수출의 경우, 식료 및 직접소비재(9.5%)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 호조⁴⁴⁾ 및 유가 상승 등으로 IT 관련 제품 및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원료 및 연료(58.6%), 중화학 공업품(12.8%) 등의 증가폭이 확대됨
 - 4월 수출은 선박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일반기계 등 중화학 공업품(27.6%)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23.8% 증가함⁴⁵⁾
 - 5월 수출도 주력품목 회복세⁴⁶⁾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함
 - 수입의 경우, 소비재(7.9%)의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원자재(36.0%)가 유가 상승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자본재(16.0%)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감
 - 4월 수입은 비중이 큰 원자재(24.5%)와 자본재(15.2%) 수입 증가세 확대로 17.3% 증가함
 - 5월 수입도 원자재(23.6%)와 자본재(19.3%)가 큰 폭의 증가를 이어가며 19.1% 증가함⁴⁷⁾

43) 수출용 수입액지수는 유가 상승 및 수출계약 증가에 따른 원유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13.1%, 전년동기대비 46.1% 증가함(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4), 『2017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44) D램 주력품목이 DDR3에서 단가가 15.8% 높은 DDR4로 변경됨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고 단가가 상승함(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4), 『2017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45) '17. 4월 수출은 역대 2위 수출실적, '11. 8월(25.5%)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 4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 6개월 연속 증가를 나타냄. 품목별로 선박이 사상 최대 실적(71.3억 달러)을, 반도체(71.4억 달러), 일반기계(42.9억 달러)는 역대 2위, 4위 수출실적을 기록함(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5. 1), "2017년 4월 수출입 동향")

46) 수출증가율(%): (반도체) 63.3, (철강) 36.5, (석유제품) 29.8, (선박) 27.5, (석유화학) 13.5, (디스플레이) 13.0, (컴퓨터) 8.9, (일반기계) 4.3, (자동차) 3.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6. 1), "2017년 5월 수출입 동향")

47) '11. 12월 이후 65개월 만에 5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함(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6. 1), "2017년 5월 수출입 동향")

〈표 30〉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2.1	5.0	5.3	10.9	10.6	8.0	9.5	12.1	1.9
	원료 및 연료	-33.3	-31.3	-20.5	-16.0	5.0	-16.4	58.6	9.6	31.6
	경공업 제품	-8.4	-5.5	-0.8	5.8	1.2	0.2	2.0	-3.7	-3.6
	중화학 공업품	-4.9	-13.0	-6.1	-5.0	1.5	-5.7	12.8	27.6	13.6
	전체	-8.0	-13.7	-6.7	-5.0	1.8	-5.9	14.7	23.8	13.3
	금액	5,267.6	1,151.9	1,260.2	1,218.5	1,323.6	4,954.3	1,321.1	508.7	450.3
수입	소비재	2.1	-2.6	3.4	0.5	2.5	1.0	7.9	3.0	6.3
	원자재	-29.6	-25.3	-18.6	-8.7	3.8	-12.8	36.0	24.5	23.6
	자본재	1.3	-7.6	-3.2	-2.5	5.1	-2.0	16.0	15.2	19.3
	전체	-16.9	-16.0	-10.1	-5.1	4.1	-6.9	23.9	17.3	19.1
	금액	4,365.0	938.3	993.0	1,024.6	1,105.9	4,061.9	1,162.5	380.0	393.5
무역수지		902.6	213.6	267.2	193.9	217.7	892.3	158.6	128.7	56.8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7년 1/4분기 지역별 수출은 수출대상국 경기 회복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지역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 증가 등으로 주요 지역에서 모두 증가함
- 수출의 경우, 미국($\Delta 2.0\%$)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세안(31.5%)이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의 수출 호조로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대다수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함⁴⁸⁾
 - 4월 수출은 중동($\Delta 4.2\%$)을 제외하고 EU(64.9%)와 중남미(30.3%) 지역이 선박을 중심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함⁴⁹⁾
 - 5월 수출은 미국($\Delta 1.8\%$)과 중동($\Delta 2.9\%$)을 제외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이어감
 - 수입의 경우, 중동지역이 원유 수입단가⁵⁰⁾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65.7% 상승하였고, 중국(15.5%), 일본(24.9%) 등 대다수 지역에서 증가함

4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4), 『2017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4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5. 1), “2017년 4월 수출입 현황”

50) 관세청 보도자료(2017. 6. 15), “2017년 5월 수출입 현황”

- 원유 수입단가(\$/배럴): (‘16.1) 33.7, (2) 30.1, (3) 32.9, (‘17.1) 53.8, (2) 56.4, (3) 56.3

- 4월과 5월 중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36.8%, 30.0% 증가하였으며 중국, 동남아, 일본 등도 증가세를 이어감

〈표 31〉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수출	중국	25.1	-15.8	-12.7	-8.0	-0.9	-9.3	17.5	10.2	7.5
	ASEAN	15.0	-11.2	-1.3	-1.1	12.5	-0.4	31.5	19.6	36.0
	미국	13.4	-3.3	-4.3	-8.8	-3.1	-4.8	-2.0	3.7	-1.8
	EU	9.4	6.6	-10.0	-8.4	0.9	-3.1	8.0	64.9	21.8
	중동	5.3	-20.3	-22.2	-15.9	4.9	-13.8	2.0	-4.2	-2.9
	중남미	5.1	-28.7	-17.1	-11.7	-8.3	-17.1	11.6	30.3	2.3
	일본	4.9	-13.2	-14.0	3.5	6.1	-4.8	18.8	18.9	8.1
	전체	100.0	-13.7	-6.7	-5.0	1.8	-5.9	14.7	23.8	13.3
수입	중국	21.4	-9.5	-3.0	-3.4	1.2	-3.6	15.5	11.4	14.6
	동남아	15.3	-8.3	-2.4	0.8	4.7	-1.3	16.4	21.6	25.7
	중동	13.3	-42.2	-29.9	-12.7	8.4	-21.0	65.7	36.8	30.0
	EU	12.8	-11.6	-10.4	-10.3	-4.7	-9.3	8.7	-9.4	4.7
	일본	11.7	-11.2	-3.7	11.4	19.6	3.5	24.9	19.3	20.5
	미국	10.6	-4.7	-1.5	-6.2	5.0	-1.8	19.1	32.8	20.9
	호주	3.7	-15.1	-17.5	-13.2	17.4	-7.7	31.4	41.8	32.5
	전체	100.0	-16.0	-10.1	-5.1	4.1	-6.9	23.9	17.3	19.1

주: 1) 2016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가계소득〉

- 2017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한 459.3만 원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고, 실질소득은 물가상승세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함
- 근로소득은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 반면, 저임금 서비스업, 건설업 일용직, 고령층 중심의 고용이 증가하여 전년동기와 동일한 302.2만 원을 기록함⁵¹⁾
 - 사업소득은 임대소득 증가에 따라 0.9% 증가하였고, 이전소득은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확대⁵²⁾에 따라 5.3% 증가하였으며, 재산소득도 15.2% 증가함⁵³⁾

5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5. 26), “'16년 소득분배 및 '17년 1/4분기 가계소득 분석”

52)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2017년 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160만 원에서 190.4만 원으로 확대됨

5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5. 26), “'16년 소득분배 및 '17년 1/4분기 가계소득 분석”

〈표 32〉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¹⁾

(단위: %, %p, 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37.3	455.5	430.6	444.5	431.2	439.9	459.3
	증가율	1.6	0.8	0.8	0.7	0.2	0.6	0.8
	실질 증가율 ²⁾	0.9	0.0	0.0	-0.1	-1.2	-0.4	-1.2
근로소득	금액	291.9	302.2	286.3	301.9	290.6	294.8	302.2
	증가율	1.6	0.3	1.9	1.9	0.4	1.0	0.0
사업소득	금액	84.6	84.9	85.6	86.2	86.9	85.9	85.6
	증가율	-1.9	3.3	0.2	1.1	2.2	1.5	0.9
재산소득	금액	2.0	1.9	1.5	1.4	1.7	1.6	2.2
	증가율	0.1	-21.0	-9.8	-31.9	-4.4	-18.4	15.2
이전소득	금액	43.8	47.0	44.7	44.6	42.5	44.7	49.5
	증가율	9.4	0.7	3.8	0.4	2.9	2.1	5.3
처분가능 소득	금액	356.3	370.4	351.9	360.7	354.1	358.8	-
	증가율	1.9	1.0	1.0	0.7	0.4	0.7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56.3	266.9	249.4	257.9	246.8	255.0	-
	증가율	0.5	0.6	0.0	0.7	-3.2	-0.5	-
	실질 증가율 ²⁾	-0.2	-0.3	-0.9	-0.1	-4.6	-1.5	-
흑자액	금액	100.0	103.5	102.5	102.8	107.3	103.8	-
	증가율	5.6	1.9	3.6	0.8	9.7	3.8	-
평균소비성향 ³⁾		71.9	72.1	70.9	71.5	69.7	71.1	-
흑자율 ⁴⁾		28.1	27.9	29.1	28.5	30.3	28.9	-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2015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금액 자료가 소급 변경됨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5)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가 분기 주기 공표에서 연간 주기 공표 통계로 개편됨. 단, 가계소득통계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기 발표함.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은 이를 기초해 작성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다.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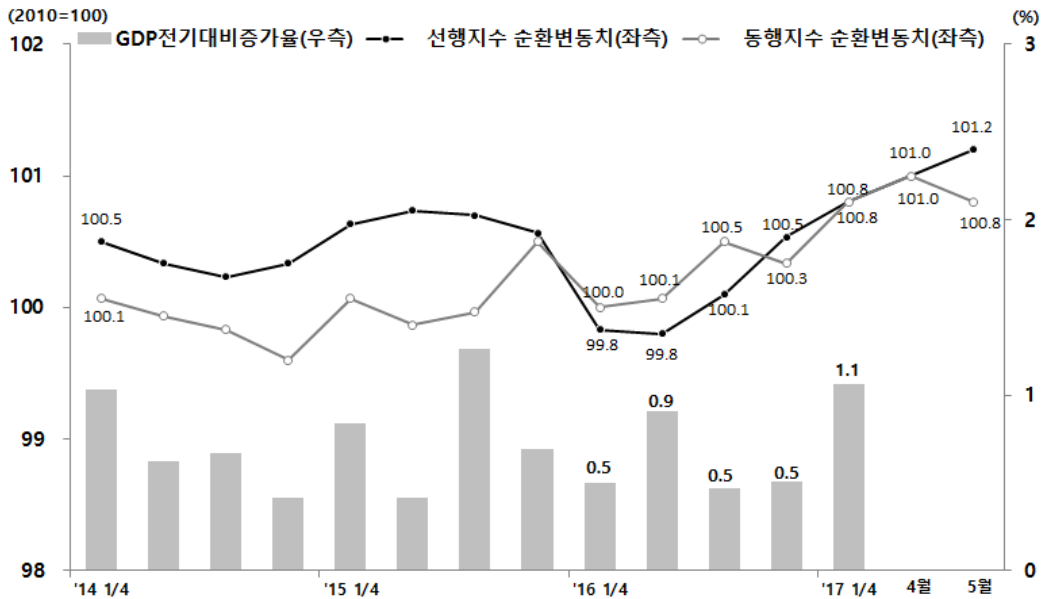
- 2017년 1/4분기 경기동향⁵⁴⁾을 살펴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⁵⁵⁾가 전분기대비 0.3 상승한 100.8을 기록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⁵⁶⁾는 전분기대비 0.5 상승한 100.8을 기록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소비자기대지수와 구인구직비율, 수출입물가비율 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분기대비 0.3 상승한 100.8을 기록함
 - 4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와 구인구직비율이 하락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와 건설수주액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2 상승한 101.0을 기록함
 - 5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와 건설수주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와 코스피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월대비 0.2 상승한 101.2를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소매판매액지수가 하락하였으나 건설기성액이 크게 상승하며 전분기대비 0.5 상승한 100.8을 기록함
 - 4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광공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수가 하락하여 전월과 동일한 101.0을 기록함
 -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수가 하락하여 전월대비 0.2 하락한 100.8을 기록함

54) 통계청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설명력 향상을 위해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함(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경기종합지수는 이를 기초해 작성함

55)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56)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6년 3/4분기, 10월과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1/4분기 재고율⁵⁷⁾은 제조업 출하지수 상승(0.5), 재고지수 상승(0.6)으로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115.3%를 기록함⁵⁸⁾

○ 4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6.3%p 상승한 122.1%를 나타냄

- 4월 제조업 출하는 기계장비,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감소하여 전월대비 2.5%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전기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1차금속, 화학제품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2.8% 증가함⁵⁹⁾

○ 5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3.4%p 상승한 125.5%를 나타냄

- 5월 제조업 출하는 전자부품, 반도체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통신·방송장비,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하여 전월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식료품,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화학제품 등이 늘어 전월대비 2.5% 증가함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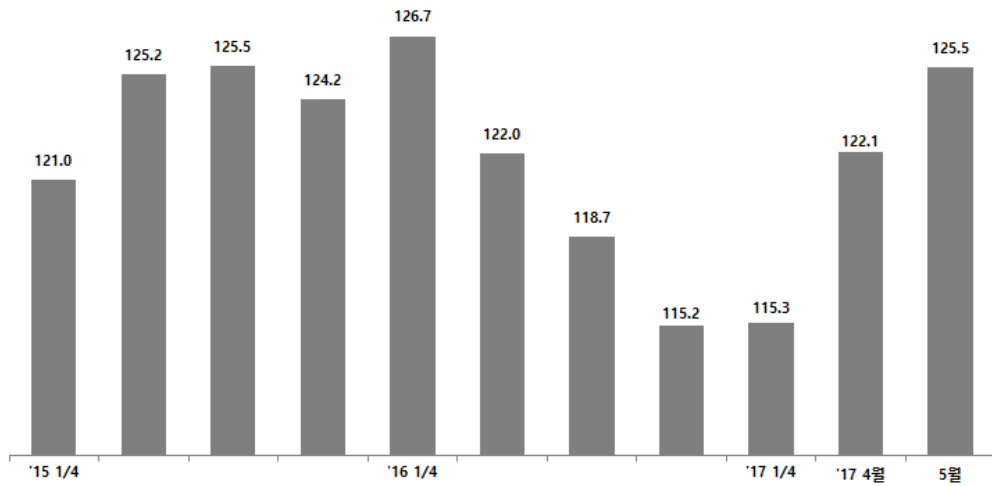
57)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58) 2017년 1월~5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59) 통계청 보도자료(2017. 5. 31), “2017년 4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¹⁾

(%)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60)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30), “2017년 5월 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7년 2/4분기 국고채(3년, 5년, 10년 만기) 평균 금리는 각각 1.68%, 1.88%, 2.20%로 2017년 1/4분기(1.67%, 1.86%, 2.17%)보다 상승함
 - 정책금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25%로 동결됨
 - 국고채 금리 상승의 원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새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 때문임
- 2017년 2/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29.4원으로 전분기(1,154.3원)대비 하락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279.26로 전분기(2,094.84)대비 상승함
 - 국내 경기지표 개선과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 등으로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임
 - 글로벌 증시 호조,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대 등으로 종합주가지수가 강세를 보임
- 2017년 2/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19,618.50으로 전분기(18,528.00)대비 상승하였으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10.70, 0.86로 전분기(9.71, 0.75)대비 상승함
 - KOSPI 보험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도 상승함

〈금리〉

- 2017년 2/4분기 정책금리는 1.25%로 동결됨(〈표 33〉 참고)
 - 2017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정책방향 및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요인이라고 평가함
 - 또한 국내 경제는 수출 개선과 새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2/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대비 9bp 하락한 1.40%임(〈표 33〉 참고)
 - 4월 평균 CD(91일) 금리는 1.43%, 5월과 6월은 각각 1.39%, 1.38%로 매월 하락세를 보임

■ 2017년 2/4분기 국고채 3년, 5년, 10년 평균 금리는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하여 각각 1.68%, 1.88%, 2.20%임(〈표 33〉 참고)

○ 4월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대통령 선거 등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전월 평균 금리(1.71%, 1.91%, 2.22%)보다 하락한 1.68%, 1.86%, 2.18%를 기록함

○ 5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6월 금리인상 기대와 새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4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한 1.69%, 1.91%, 2.26%를 나타냄

○ 6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해외 장기금리 하락으로 3년물 1.67%, 5년물 1.86%, 10년물 2.17%로 하락함

〈표 33〉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구분	2016 2/4	2016 3/4	2016 4/4	2017 1/4	2017 2/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책금리	1.25	1.25	1.25	1.25	1.25	-	-
CD(91일)	1.54	1.35	1.44	1.49	1.40	-0.09	-0.14
국고채(3년)	1.42	1.26	1.55	1.67	1.68	0.01	0.26
국고채(5년)	1.51	1.29	1.67	1.86	1.88	0.02	0.37
국고채(10년)	1.74	1.44	1.91	2.17	2.20	0.03	0.46
회사채(3년, AA-)	1.88	1.67	1.99	2.15	2.21	0.06	0.33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46	0.41	0.44	0.48	0.53	0.05	0.07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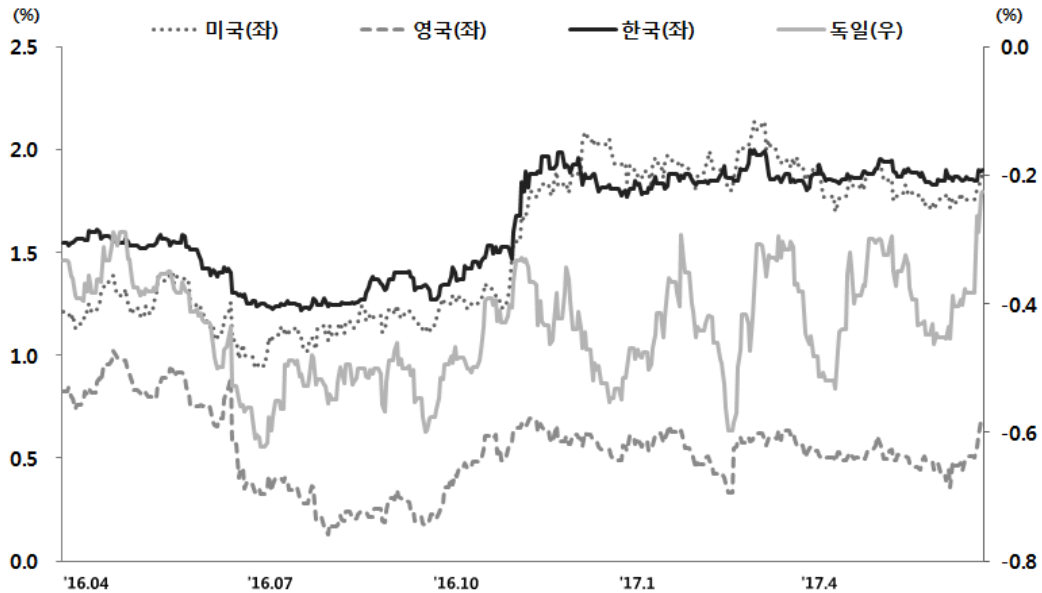
■ 2016년 말부터 지속되었던 우리나라와 미국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은 2017년 5월 중순 이후 완화되고 있음(〈그림 3〉 참고)

○ 독일과 영국의 국채금리는 유로존의 경제지표 개선⁶¹⁾으로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⁶²⁾가 전망되어 상승세로 전환함

61) 2017년 1/4분기 유로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6%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62) ECB는 지난 4월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월 800억 유로에서 월 600억 유로로 축소하며 본격적인 테이퍼링 국면에 진입했으며, 또한 6월 정례회의에서는 추가 금리인하 여지를 시사하는 '더 낮은 수준'이라는 문구를 삭제함

〈그림 3〉 주요국의 국고채 5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7년 2/4분기 평균 2.21%로 전분기대비 6bp 상승함(〈표 33〉참고)

- 4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2.20%, 2월과 3월은 각각 2.22%, 2.21%를 기록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5bp 확대된 평균 53bp임

〈환율〉

■ 2017년 2/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24.9원 하락한 평균 1,129.4원임(〈표 34〉참고)

- 4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⁶³⁾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기대의 후퇴로 전월대비 2.0원 하락한 1,132.7원을 기록함
- 5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국내 경기 지표 개선⁶⁴⁾과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 코스피 상승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4월보다 7.4원 하락한 1,125.3원임

63)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 → 2.6%,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4. 13), “2017년 경제전망(수정)”

64) 2017년 4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24.2% 증가한 510억 달러(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2위 실적)

2017년 5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대비 6.8p 상승한 108.8p(2014.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2017년 4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7%, 전년대비 2.8%로 3월 지표대비 개선

- 6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유가 하락⁶⁵⁾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130.0원을 기록함

〈표 34〉 주요국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6			2017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원/달러	1,163.2	1,121.4	1,157.4	1,154.3	1,129.4	1,132.7	1,125.3	1,130.0
엔/달러	108.2	102.4	109.5	113.7	111.0	110.1	112.2	110.9
달러/유로	1.129	1.116	1.078	1.065	1.101	1.071	1.107	1.123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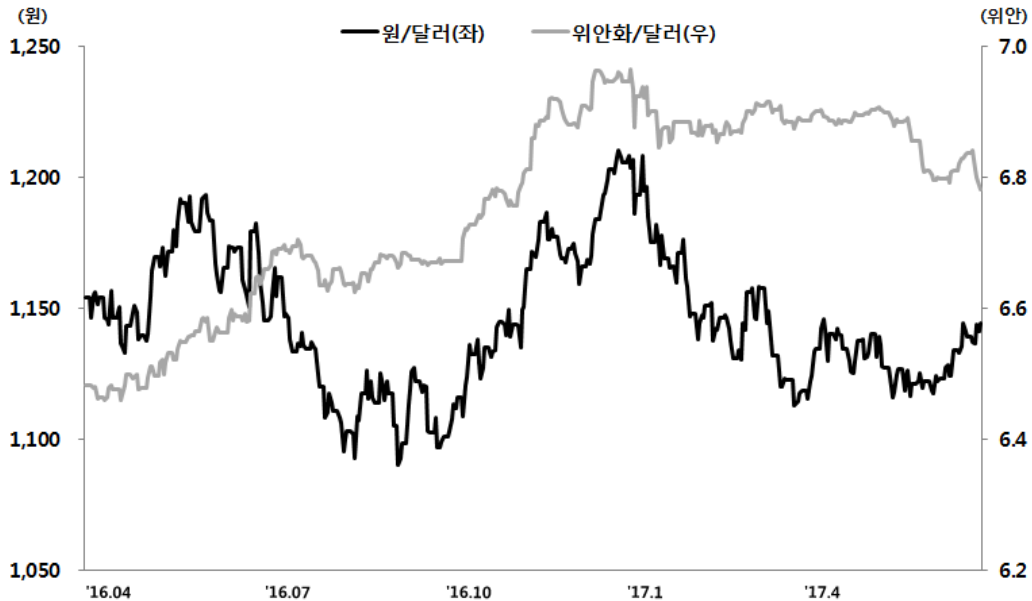
- 2017년 2/4 분기 위안/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전분기대비 0.027위안 하락한 평균 6.862 위안을 기록함

- 5월 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AA3→A1)에도 불구하고 최근 달러화 약세와 위안화 고시환율 결정방식 수정⁶⁶⁾으로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화 역시 강세를 보여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그림 4〉 참고)

65) WTI는 6.21일 배럴당 42.1달러로 '16.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66) 인민은행은 6월부터 위안화 고시환율 결정방식에 '경기대응 조정요인'을 추가함. 이는 시장 변동성 대비 환율 변동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안화의 글로벌화(시장화)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대신 정부의 환율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임

〈그림 4〉 위안/달러와 원/달러 환율 비교



자료: Bloomberg.

■ 2017년 2/4분기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 엔/달러 평균 환율은 하락하고,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상승함(〈표 34〉 참고)

○ 4월 엔/달러 환율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전월대비 하락한 110.1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프랑스의 정치적 리스크 완화, 영국 조기 총선의 실시 등으로 상승하여 1.071달러를 기록함

○ 5월에는 일본은행의 완화 기조 유지 속에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등에 따른 안전통화 수요 감소로 엔/달러 평균 환율은 전월대비 상승한 112.2엔,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프랑스 대선 관련 우려 완화, 유럽 경제 지표 개선⁶⁷⁾ 등의 영향 등으로 1.107달러를 나타냄

○ 6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일본의 저물가 지속,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하락하여 110.9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유로존 증시 호조와 드라기 ECB 총재의 테이퍼링 관련 발언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1.123 달러임

67) 유로존 4월 CPI는 +1.9%(YoY)로 반등하고, 근원 CPI는 +1.2%로 '13.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주가〉

■ 2017년 2/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2,094.84보다 상승한 평균 2,279.26임(〈그림 5〉참고)

- 4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해소, 국내 수출 지표 개선,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전월 평균주가지수 2,136.17보다 상승한 2,160.18을 나타냄
- 5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301.89로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새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대 등의 영향으로 4월에 비해 상승
- 6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372.20으로 글로벌 증시 호조,⁶⁸⁾ 소비자심리지수 개선⁶⁹⁾으로 내수 회복 기대감, 외국인 순매수⁷⁰⁾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하여 6월 29일 역사상 최고치(2,395.66)를 기록함

〈그림 5〉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68) 2017년 상반기 중 세계주가는 7.8%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49개국 증시 중 14개(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노르웨이, 뉴질랜드, 한국 등) 증시가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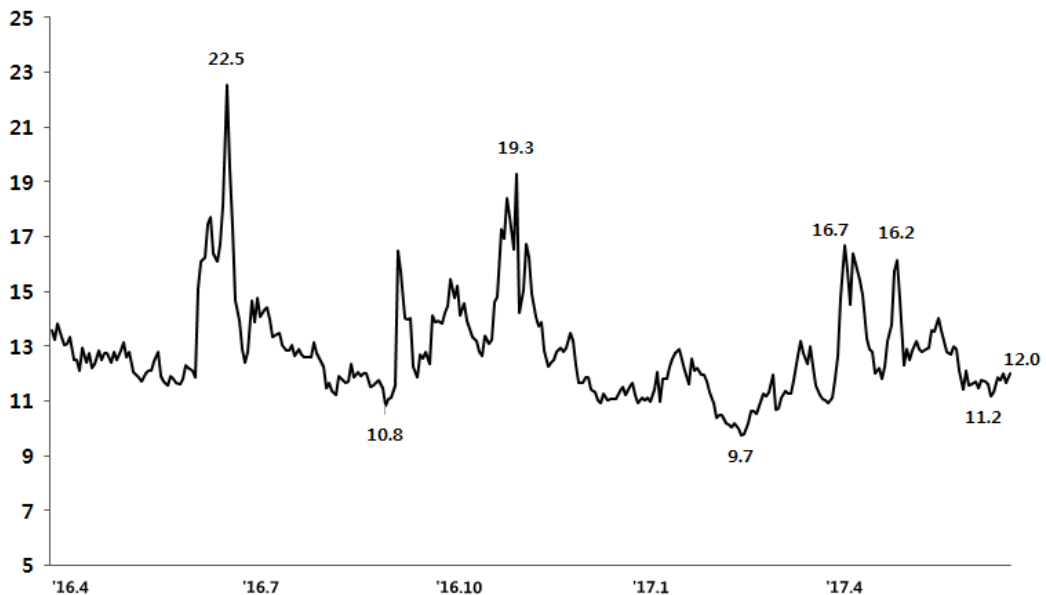
69) 2017년 6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대비 3.1p 상승한 111.1('11년 1월 이래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70) 2017년 6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는 약 1조 6,700억 원임

■ 2017년 2/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를 살펴보면 대내외 여건으로 상승·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그림 6〉 참고)

- 4월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5월에는 주가의 단기간 급등에 따른 조정 우려가 부각되어 변동성지수가 연중 최고치인 16.7까지 상승함
- 그 이후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글로벌 증시 호조로 변동성지수는 하락세로 전환함

〈그림 6〉 변동성지수(VKOSPI)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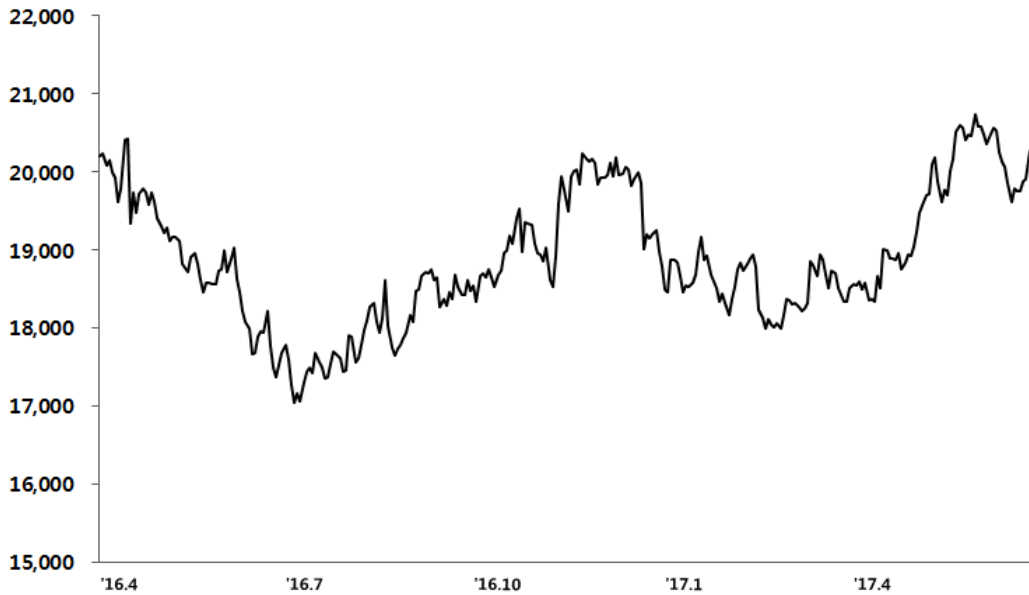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주가〉

■ 2017년 2/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전분기 평균 18,528.00보다 상승한 19,618.50임
(〈그림 7〉 참고)

-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세와 보험회사의 1분기 실적 호조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국정기획위의 실손보험 관련 가격 규제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하락세를 보이기도 함

〈그림 7〉 KOSPI 보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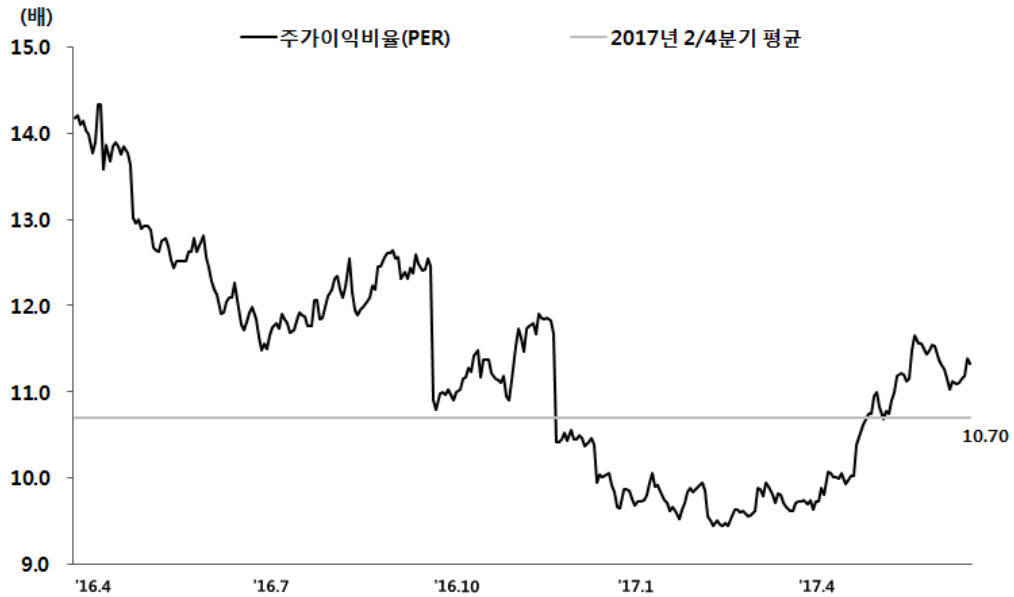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4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5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 2017년 2/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10.70과 0.86으로 전분기 평균인 9.71과 0.75에 비하여 상승함(〈그림 8〉, 〈그림 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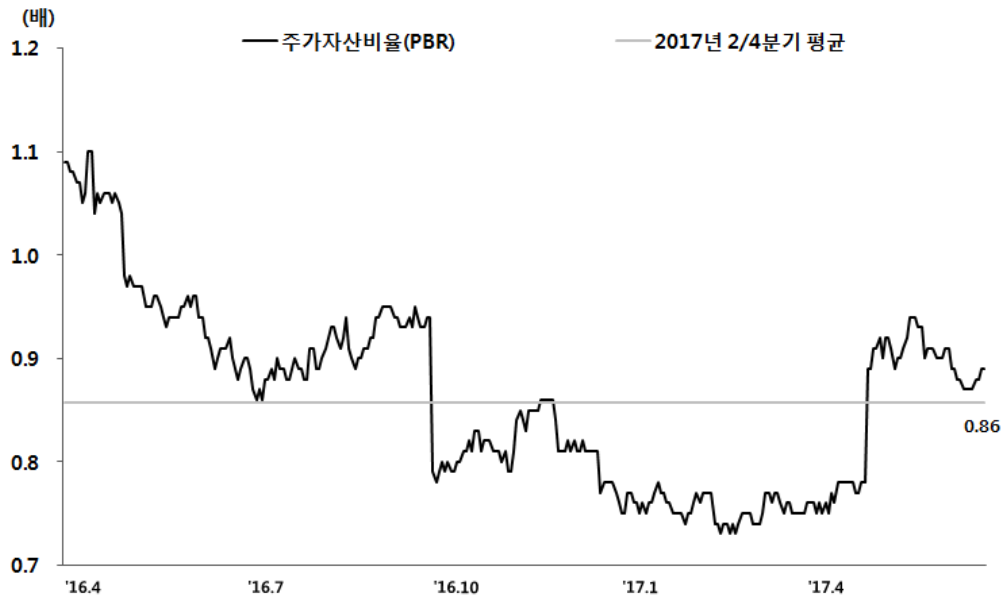
○ 보험지수의 상승으로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 모두 상승함

〈그림 8〉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7년 2/4분기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9〉 보험 주가자산비율(PBR)



주: 직선은 2017년 2/4분기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